

# 소중한 꿈과 희망을 꽃피워주는 아이들의 공전

## -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고 -

예로부터 《백사청송》이라 불리우는 조선의 동해명승 송도원에는 어린이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꽃피워주는 최후의 궁전이다.

꿈속의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아이들의 공전, 아이들이 세상에 부럽없는 야영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최상급의 야외문화생활기지,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킨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는 조선의 밝고 창창한 미래가 비껴여있다.

\*  
언제나 미국의 CNN방송이 전한 기사의 한 대목이다.

《올 여름에 발한 자식들을 달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자식들을 조선으로 떠나보내라고 권고하고있다.》

이 방송이 권유한 아이들의 야영지는 다름아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였다. 야영소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면서 CNN방송은 야영생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오아시스와 같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황홀경이고 보는것마다 경탄을 자아내는 멋진야영소이다. 건물 하나, 계단 하나, 소개관 하나

에도 학생소년들의 심리적 성과 지향을 반영하고 그들의 교육요양에 이바지하는 세계적인 야영소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라는것이 세상사람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야영소에 발을 들여놓는 첫 순간 아이들의 입에서는 《야!》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야영생활기간에는 즐거운 등산길도 있고 난생처음 계승으로 음식을 만들어보는 기쁨도 맛볼수 있다. 수족관에서 바다세계를 구경할수 있고 신비한 《미국》의 세계, 꿈속의 세계와도 같은 거울집에서의 길찾기는 야영생들의 웃음보를 터친다. 전 자오라실에서 경쾌한 정마놀이 또한 신나다. 실내체육관, 림채플 동영화관, 야외활조기 등 야영소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아이들의 기쁨과 행복, 흥분과 랑만이 차넘친다.

꿈같은 야영생활로 시간은 줄 모르는 어린이들의 기쁨원히 모순, 한번 오면 영원히 떠나고싶지 않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그대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날로 커가는 공화국의 현실을 생동하게 엿볼수 있게 하는 산 증거이다. 이에 대하여 어느한 나라의 인터넷에는 다음과 같

은 글이 실리었다.

《...값고 푸른 조선동해의 기슭에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국제사회의 각별한 시선을 끄는것은 단지 그 황홀함때문만이 아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며 그들의 모든 꿈을 꽃피워주는 조선의 최후의 궁전보다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째로, 야영소에 현대적으로 갖추어진 모든것이 야영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것이다. 둘째로, 다른 나라들같은 백만장자나 특권층의 자식들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할 훌륭한 곳에 자동차, 농민, 탄부, 어로공 등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이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고있는것이다. 셋째로, 이 모든것이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로선과 정책의 구현이며 산물이라는것이다.》

무엇 아이들의 웃음에 가정의 화목과 번성이 깃든다고 하였다.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의 모습에 해당 사회의 면모와 민족의 전도가 비견다.

하지만 이 행성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예 어린 생명들이 참혹한 전쟁과 무서운 자연재해, 온갖 사회악속에 불행하게 시들어가고있는가. 극심한 아동학대가 만연된 미국에서는 지금 소년노동자

가 25만명이상에 달하며 지어 아동노동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벌어져 사회계의 비난을 받고있다.

아동천시, 아동학대가 풍조로 되고있는 남조선사회에서도 근로대중의 아들딸들이 황량한 사막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이 꽃망울도 피워보지 못한채 사회악의 참담한 희생물이 되고있다. 이런 사회를 두고 어찌 미래가 있는 사회라고 하겠는가.

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려오고있다.

어딜 가나 명당자리들마다에 아이들을 위한 멋쟁이 건축물, 행복의 별천지, 사랑의 궁전이 솟아있고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라고 기쁨의 노래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강선으로 차넘친다.

한번이라도 공화국에 와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을 보며 말하고있다.

김정은령도자의 후대사랑의 정치가 빛발치는 공화국이야말로 아이들의 천국, 아동민세의 세상이라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조용히 둘러보면 한없는 경정으로 가슴이 젖어든다. 일찌기 미래를 사랑하지 않는 혁명, 미래를 가꾸지도 돌보지도 않는 혁명은 정당성이 없는 혁명이다. 그런 혁명이

어떤 금빛찬연한 리상을 달성하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것이라고 교시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그이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하며 풍치수려한 송도원에 아이들을 위한 야영소를 건설하는데 국가에서 많은 자금을 야영장이기 위하여 쓰셨다.

그처럼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는것은 미래를 사랑하고 후대들을 위하여 투쟁하라라는것이라고 하시며 자위의 총대로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시러 회생적인 헌신과 로고의 자욱 자욱을 새겨가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한없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의 노래처럼 눈물겹게 전하는 력사의 증언대로 바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이다.

바로 그래서이리라.

지금으로부터 10년전 5월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소년단야영소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주는데 특별히 준비한 축하공연과 야영소의 밤하늘에 터져오르는 축하도 학생소년들과 함께 보시며 존중시킬

후비대로 훌륭히 키워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그 이듬해 한겨울의 차디찬 해풍이 기습을 부리던 2월에도 건설장을 찾으시였던 대결전을 벌리던 4월의 그날에도 준공을 앞둔 이곳 야영소를 찾으시었다. 찾으시어는 아직 랑간도 세우지 못한 험한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 아이들이 야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야영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시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나라의 귀중한 보배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가울것이 없다고, 힘이 들어도 절절코 잘 건설해야 후대들에게 떳떳히 넘겨줄수 있다고 하시며 야영소에 최신식영화보급시설과 음향설비들, 각종 전자유회시설과 문화오락기재들도 보내주도록 하시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야영소를 세상에 돌도 없는 행복의 별천지, 온 나라 아이들의 기쁨과 행복의 궁전으로 꾸려주시것이니 그리도 기쁘시어 준공식날에는 아이들의 추수경기도 많은 시간을 내어 보여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축하공연과 야영소의 밤하늘에 터져오르는 축하도 학생소년들과 함께 보시며 존중시킬

없는 사랑과 정을 부여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이다. 정녕 위인전의 그 어느 갈피에 나라의 령도자가 아이들의 정깊은 아버지가 되여, 다심한 어머니가 되여 가장 숭고하고 헌신적이며 가장 지극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은 령가 있었는가.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한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는 아가울것이 하나도 없다는것이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이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하나만 보아도 후대사랑이 꽃피는 공화국의 밝은 현실을 알수 있다.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받아들인 행복의 크기를 다는 모르지만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것인가를 잘 알고있기에 즐거운 야영생활을 보낸 학생소년들은 일기장에 고마움의 글줄을 달린다.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속에 훌륭하게 꾸려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보내면서, 끼마다

맛있는 음식이 오르는 식탁에 마주앉을 때마다 아버지사랑, 어머니사랑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사랑을 부여주시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생각을 했다.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하여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에 꼭 보답하겠다.》

어찌 이것이 강계중등학교의 최신회학생 혼자만의 심정이라. 야영생들모두가 행복했던 나날에 인상깊었던 일들을 매일매일 일기장에 적어넣으며 보답의 일념을 가다듬는다.

조선의 미래가 이렇게 자라고있다.

절세위인의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의 다심하신 사랑, 한량없는 은정을 삶의 자양분으로 하여 이 나라의 새세대들이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썩씩하게 준비해가고있다.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위대한 정치를 펼치신 경에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아이들도 어른들도 부르는 《세상에 부럽없던라》의 노래소리는 세세년년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며 공화국은 날로 더욱 부강해지고 융성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10월 공화국의 국가방위력의 발전상을 잘 알수 있게 하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하신 력사적인 기념연설에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한다고, 우선 강해지고보아야 한다고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장군님, 가지면 안됩니다. 앞에는 최전선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총포탄과 폭탄이 작렬하는 위험천만한 전선길을 헤쳐가시는 어머니수령님의 앞길을 막아서며 인민군용사들은 이렇게 간절히 아뢰었다.

오늘도 전화의 그날처럼 인민은 령도자에게 위험천만한 화선길을 더는 걸지 마시라고 간절히 아뢰고있다.

그러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안녕을 위해,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위험천만한 화선길을 귀찮이 걸으시고계신다.

또한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최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뜻을 위해서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며 대해같은 물을 흘리는 어린이들의 참상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쓰리게 하였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도 자위의 힘이 강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후대들의 얼굴에 단 한점의 그늘도 지지 않게 하시려고, 불행과 전쟁을 모르고 오직 행복속에 무럭무

### ◎ 미래 사랑을 꽃피우시는 길에서 ◎

#### 오랜 시간 아이들을 기다리시며

주제 102(2013)년 5월 어느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시 룡산산단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었다.

야영소의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야영생들이 멋시에 돌아오라고 불렀다.

한 일군이 17시경에야 등산을 끝내고 내려오게 되었고 말씀드리자 경에하는 그이께서는 빨리 가서 야영생들을 다 데려와야 하겠다고, 자신께서는 여기까지 왔

다가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몹시 섭섭해할것이라고,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가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천군과도 같은 귀한 오랜 시간을 바쳐 기다리시어 야영생들을 한복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이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무한한 행복에 겨워 눈물을 쏟고있는 아이들에게 울지 말고 찍어서 사진이 잘 된다고, 어서 눈물을 그치고 사진을 찍고와 달래서 사랑의 기념사진을 남기시었다.

《우리 아버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부르며 이 나라 아이들이 감격에 겨워 목청껏 터치고있는 부르이다.

인류가 기억하고있는 위인들은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미더중의 미더으로 간주하여은 아이들의 빛이었고 스승이였다.

그러나 조국의 미래, 후대들을 위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그 누가 따를수 있을것인가.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어렵고 곤란한 시기에 굳건히 지켜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먼 후날이 가서 사회주의승리의 합성으로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인민들과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에서 보람을 찾는것이 혁명가들이이다.

이런 열화같은 사상감정으로 심장을 끓이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아이들에게 세상에 제일 좋은것을 하루빨리 안겨주기 위해 그리고 다 음쓰시는것이며 그 어디에 가지서서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사랑과 정을 광그리 기울이시

#### 제일 관심하는 공장

주제105(2016)년 4월 어느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훌륭히 일떠선 공장을 돌아보시며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의 생산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공장이 일떠선 결과 학습장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이유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은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케해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 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 줌으로써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안겨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 뜨거운 미래사랑으로

주제105(2016)년 12월 어느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강릉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시었을 때였다.

이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의 어느한 각의 현관홀정면에 정중히 모셔진 영상미술작품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전선시찰의 마나면 길에서 야영차를 세우시고 야영가는 아이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이였다.

그의 추억에 잠겨계시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최전연초소로 달리던 야영차에서 내리시어 야영가는 아이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보니 《장군님과 아이들》이라는 노래가 생각났다고, 노래 《장군님과 아이들》은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폭죽으로 잠을 대신하고 꿇기 밥으로 끼니를 예우시며 전선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높이 구가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사연깊은 노래의 구절구절을 되새겨보시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렇게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뜨거운 미래사랑으로 지켜주시어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영원히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 절세위인께 인민이 삼가 드린 칭호 《우리 아버지》

리 아이들은 경에하는 원수님을 비을 때면 《아버지!》라고 부르며 저마다 그이의 옷자락에 매달린다.

나라의 중대사를 토의하는 당중앙전원회의에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든든하게 잘 키우실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하시며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

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하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이이다. 한결같은 그이께서는 압박의 재난을 당한 북반방 학생소년들의 얼굴에 그들이 절세 사랑과 행복의 야영길을 펼쳐 주시였으며 비오는 곳은날에

화환속에 우리 글을 익힌지 얼마 안되는 철없는 아이들이 경에하는 원수님을 편지를 썼고 그이께서는 아버지가 회답을 보내듯 친필을 새겨주시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생겨 나게 되였다.

예로부터 설움중에서 제일 초상화앞에서 경에하는 원수님과 원아들이 단란한 한 식탁이 되어 찍은 그날의 뜻깊은 기념사진이야말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족사진이 아니겠는가.

여기에는 모든것이 다 새겨져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에게 먹일 물고기의 수량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던 그 순간이며 신년사를 하면서 온 나라의 귀여운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해주고보니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이 더욱 보고싶었다고 하시면서 새해 첫날 원아들과 함께 계신 가슴뜨거운 사연도, 몸이 허약한 원아들이 있다는것을 아시고 군인들이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는 병원에 입원시켜 특별히 보양식을 해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신 감동깊은 일화도, 우리는 무슨 이름을 하나 달아도 조국에 뜨겁게 안겨주고 민족적 향취가 한껏 풍기게 달아야 한다고, 이제 학습장공장에서 《민들레》상표를 단 학습

본사기자

창을 생산하면 우리 학생들의 가방도 우리의것, 교복도 우리의것, 학습장도 다 우리의것으로 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의 것이 제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조선의 미래를 꽃피우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미래사랑의 세계도...

아직은 《원수님》이라는 호칭에 담긴 그 깊은 뜻을 알수 없는 아이들이 우리 원수님의 품을 파고들며 《아버지!》라고 스스로없이 부르는 모습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지어낼래야 지어낼수 없는, 오직 이 땅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혈연의 화폭이다.

《아버지!》, 이 세상 가장 훌륭한 말마디들을 고르고 골라드 이보다 더 좋은 친근한 부름을 찾을수 없기에 우리 아이들은 《꿈결에도 보고싶은 우리 아버지, 아 보고싶은 김정은원수님》이라고 오늘날도 목청껏 노래부른다.

리 일 현